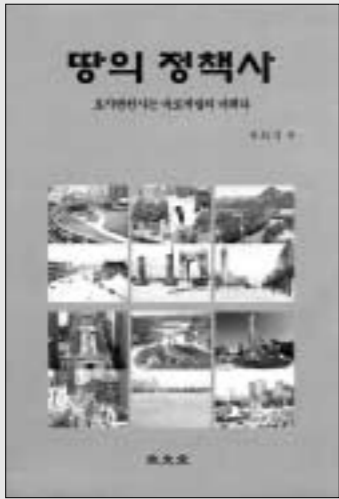


화제의 新刊

고대부터 참여정부까지 토지정책史 발간

서희석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장

포천출신 서울시청 서희석 토지관리과장이 공직생활 37년간의 경험과 학문을 바탕으로 고대사회부터 최근 변화된 토지정책의 동향까지 총망라한 '땅의 정책사'를 발간했다.



땅의 정책사 표지

땅의 정책사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가 많아 자칫 무겁고 지루하기 쉬운 토지정책을 흥미가 있는 땅의 이야기로 꾸몄다.

특히 이승만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외의 미래 계획 및 주택전반에 관한 정책을 총망라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토지정책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땅의 움직임을 통해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부정의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발표 이후 서울과 부산 및 수도권 주변 토지로 자금이 몰리면서 땅값이 급등한 현상을 보였다. 이후 부동산투기로 시골 투지까지 위축되자 정부는 1967년 11월 29일 최초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양도 및 보유료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도시의 지가상승률은 80.7%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은 68년까지 지속했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동장군을 만나면 겨울이 신난다!

오는 24일 제2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가족단위의 다양한 겨울문화를 체험하려면 동장군을 만나러 가자. 겨울에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와 불거리 등으로 꾸며지는 제2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겨울날만 1번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국민관광지 입구 일원에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펼쳐진다.

축제기간 중 주요 체험거리로 얼음 낚시, 추억의 얼음썰매, 계곡노닐레, 군것질한마당, 전통놀이한마당, 가마솥죽지말죽과 추억의 도시락 맛보기, 가족 눈놀이 등산 등이, 먹을거리로 전통떡거리체험장과 삼터주막거리가, 그리고 살 거리로 포천시 농특산물홍보전과 동장군 축제기념상품전 등이 마련된다.

또 높이 15m에 이르는 얼음기둥 조형쇼와 고드름이 얼어 매달려 있는 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백운계곡동장군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도리담마을자치회와 백운계곡관광지부가 주관하며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후원한다.

알차게 꾸며진 축제 홈페이지도 눈길을 끄는데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동장군 축제'라는 단어를 입력해 검색하면 축제 홈페이지(www.donggangun.co.kr)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농촌자원을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하고 경지에는 없는 겨울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축제를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동절기 지역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백운계곡 일대를 4계절 체험휴양단지 문화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골의 넉넉한 인성과 옛 추억을 느끼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겨울철 체험관광의 명소로 새롭게 태어나는 백운계곡을 많은 이들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상 고온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축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제2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겨울날만 1번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국민관광지 입구 일원에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제1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비전선포식.

“영평팔경 경치 창극으로 재연”

15일,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창작소리극 공연

영평팔경을 경기민요적으로 해석한 10곡의 창작곡이 발표된다.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지부(지부장 박영실)는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창작곡 발표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지부가 주관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포천신문사 등에서 후원하며 지역주민의 폭넓은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을 위해 무료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조선 선조 때의 명재상 박순 선생의 한시 영평팔경(화적연, 금수정, 향옥병, 낙귀정, 백로주, 청학동, 선유담, 와룡암)을 소재로 우리 조상들의 풍류사상을 경기민요적으로 해석해 곡을 창작하고, 창작곡 요소를 기미해 새로운 양식의 공연예술을 선보이게 된다.

영평팔경가는 ▶서곡 화적에서 버를 털어 ▶1경 선유담 ▶2경 와룡암 ▶3경 백로주 ▶4경 낙귀정지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지부는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창작곡 발표무대를 마련한다.

▶5경 청학동 ▶6경 금수정 ▶7경 향옥병 ▶8경 화적연 ▶수월정선으로 꾸며진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韓國의 선비정신 · 16

한시(漢詩) 이야기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한시는 우리 민족문화의精華(정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들이면 부단없이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선비의 기본요건이었다.

이 한시가 현대문물에 밀려 사양길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중앙문화원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국민을 한맹(漢盲)으로 만들고 있으니 나라의 정래를 생각 할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 현실에서 그래도 한시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은 儒林(유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여 “선비정신” 본란에 한시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漢詩(한시)는 한자로 韻律(운율)에 맞게 쓰는 감상적 표현의 詩文(시문)을 말한다.

우리글 正音(정음) 즉 한글로 시를 쓰면 그것을 한글시인 것이다. 한시는 BC2500년 내지 3000년 전경에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부르던 중국고대의 민요로서 우리의 鄉歌(향가)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4.6.體(체)로서 부르던 것이 漢(한)을 거쳐 魏(위), 唐(당), 宋(송)을 지나는 동안 5.7.체로 발전되었다.

우리가 한시를 언급하려면 우선 詩經(시경)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시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詩集(시집)이며 한시의 원전이다.

처음에는 전체가 3000여편에 달하는 방대한 것을 공작계에서 이를 산수(刪修)하고 311편(지금은 305편만 전함)으로 편찬한 것이다. 시경은 시의 근본이며 賦(포)시이고 原典(원전)이다. 따라서 시경을 講誦(강송)하지 않고는 한시를 말할 수 없다. 한시를 연구하고 作法(작법)과 詩法(시법)을 하려는 한국인은 시경을 먼저 숙독하여야 할 것이다.

시는 만물대상의 感興(감흥)이다. 초목과 금수는 생명이 있어도 감상은 없다. 풀과 나무와 짐승은 토양과 먹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음식과 옷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이성의 감정과 감각 그리고 영감이 있기 때문이다.

초목은 칭찬을 해도 모르고 욕을 해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喜(희)의 怒(노)의 哀(애)의 樂(락)의 네가지 감정이 있고 測(측)은 羞(수)의 慕(모)의 非(비)의 四端(4단)의 마음과 언

어와 정서가 우리 육을 하면 대우하고 칭찬을 하면 좋아서 회색이 돈다. 그러기에 생물은 영양과 환경만 맞으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정신의 영적 정서의 느끼는 감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적이야 하며 非人爲의(비인위적)이며 非造作(비조작)이어야 한다. 한시가 아무리 騷(소) 賦(포) 論(론)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전자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화려한 조화이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형물 이기에 생명체는 아니다.

그러기에 공작계에서도 시가 300편이로되 그 사상의 전부가 사실적이며 비인위적이며 비조작적인 한 마디로 思無邪(사무사)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시를 읽고 감상하면 그 시의 배경과 정황이 그림처럼 떠오르며 감상에 젖어드는 것은 바로 이 시의 생명력이며 精純(정순)인 思無邪(사무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를 영송할 때 四韻(사운)이 잘 구성되고 광축의 四聲(사성)이 잘 맞는 材時(재시)가 있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 주고 길은 감정을 느껴 조화롭게 無礙無碍(무한무애)의 감상을 주는 心時(심시)가 바로 사무사다.

우리가 시를 쓰고 감상하며 시를 좋아하는 시인을 존경하는 것은 시는 정신세계 즉 至純(지순)의 세계에 도달해서 遊居(유거)하며 물질의 충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시는 四美(사미) 良辰(량신) 美景(미경) 樂事(낙사) 賞心(상심)의 표현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껴 휴식으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 명시를 한 수 감상하며 안식을 취하면 그야말로 심신이 상쾌하게 풀리며 기분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특히 유림이면 육신은 회복이 되나 정신(시의)의 四端(4단)의 마음과 언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선의 한시가 있었다. 문헌상으로 한시가 기록된 것은 고조선의 麗王(여옥)의 작인 공후인 題辭(제시)가 전하고 있고 또한 고구려의 琉璃王(유리왕) 작인 黃鳥歌(황조가) 을지문덕 장군의 遺子仲文(견우중문)이 전한다.

중국은 漢代(한대)를 거쳐 晚唐(만당)에 이르러 한시는 꽃을 피워 宋末(송말)에 百家爭鳴(백가쟁명)의 極盛(극성)을 이루었다.

신라에는 鄉歌(향가)가 발생하고 당을 왕래한 崔孤雲(최고운)의 시문에서 당시 신라에 한시가 성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시가 고려중엽 宋末(송말) 魏慶之(위경지)의 詩體分類(시체제분류)로 詩法(시법)이 정해졌다. 따라서 위경지 이전의 시는 문장위주이고 그 이후의 시는 法則(법칙) 위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중엽 이후 위경지의 시체를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시는 科學(과학)에 적용되어 입신술세의 요체가 되고 선비라면 전공필수 文(문) 史(사) 哲(철) 교양필수 時(시) 書(서) 畫(화)이기에 한시는 선비의 기본 요건이었다.

조선조의 漢文四大家(한문사대가)로 이정구(李廷龜) 신홍(申欽) 이식(李植) 장유(張維)가 일 지칭되고 한시사대가(漢詩四大家)는 이서구(李書九)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恭)으로 알려졌다. 이서구가 우리 포천 출신이다. 포천사람으로 공자를 갖게 된다.

포천에서 4년전부터 전국한시백일장이 열렸는데 이 또한 한시 사대가 출신 고장인 포천에서 다른 고장에서 열리는 백일장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뜻에서 열례 행사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함으로 우리 포천을 文鄉(문학) 선비의 고장이라고 한다. 한시 대가인신 향은 유봉헌(香鳳 柳鳳憲) 선생의 주도로 문학 포천의 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漢詩社(한시사)가 조직되어 매 주 금요일 유림회관에 모여 交雅(교화)하고 있으니 글을 좋아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한시의 초보자도 수련하면 作詩(작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유림이면 육신은 회복이 되나 정신(시의)의 四端(4단)의 마음과 언

안동김씨 종가터 경기문화재 지정 신청

창수면 오거리 일대에서 발굴된 320평 규모의 안동 김씨 종가터터를 포천시가 경기도 문자재자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최근 경기도는 현지 조사를 완료했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소장 박경식)가 지난해 12월 발굴한 안동 김씨 종가터는 동서 60여 m, 남북 40여m 규모로 안채, 행랑채 및 중문, 솟을대문, 사랑채 등 총 4동으로 이뤄졌다.

연구소 관계자는 안동 김씨 종가터에서 출토된 기와와 백자 제기 제작연도, 초석의 가공방법 등으로 미뤄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집터규모가 일반 종가에 비해 작은 40~50제 규모이고 주변에 금수정(향토유적 제17호)과 영평천이

있는 등 자연경관이 빼어난 점으로 미뤄 안동 김씨의 '별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발굴은 지난 2003년 창수면 오거리에 안동 김씨 후손이 집을 짓겠다고 낸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이 일대에 큰 기와집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시작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안동 김씨 집터가 발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는 대로 사랑채 등 일부는 복원하고 나머지는 유적형태로 보존, 금수정 등과 함께 문화재와 자연학습장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가락 김해김씨 포천시종친회

가락 김해김씨 김해하씨 인친회 포천시종친회(회장 김중환)는 지난 3일 포천 용정체육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종친간의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김중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51)

포천의 ‘사냥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하니아트갤러리’ (관훈동 27-5 단성B/D 2층)에서는 포천출신 미술가 이찬호 선생의 서양화 전시회가 열렸다.

평생을 한국 미술교육에 헌신한 미술가였기에 남의 제자들이 운집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개나리’ 유채 2003, ‘동해 아침’ 유채 2005, ‘복사골 마을(충북 갑곡)’ 유채 2003, ‘별개미취’ 유채 2005, ‘채인폭포(경기 연천)’ 유채 2005, ‘비자림’ (제주) 유채 2003, ‘베밀꽃밭’ (강원 봉평) 유채 2005, ‘갈대’ (울림픽 공원) 2002 유채, ‘단풍’ (설악산) 유채 2003, ‘설경’ (관악산) 2003 유채

화 등 주로 유채와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미술 전시회의 작품평은 미술 평론가들의 몫이지만 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한반도의 중부권의 자연미를 화폭에 담은 노인장(老翁壯)을 과시하는 역작이라는 평이 들리기도 하였다. 내년 1월 7일이면 고희(古稀) 90년 칠순을 맞는 예술인 담계 완숙하고도 무게 담긴 작품이라는 평을 받는 관람객도 있었다.

남은 1937년 1월 7일 군내면 좌의리에서 출생하여 청성초를 거쳐 서울 성동 중·고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미술가이다. 포천중·고를 비롯하여 경

기도 내 중·고 미술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등을 역임하였는가 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관을 역임한 미술교육, 교육행정 전문가로도 명성이 높았다고 이웃들은 말하고 있었다.

‘우영(友影)’은 남의 아호이다. 그림자를 벗삼아 반세기를 경교교육을 위해 조용히 안전하게 헌신한 선비교육자였다고 이찬호를 평하는 제자도 있었다. 현재 포천의 이모 기관장은 이찬호 님에게 회초리를 받은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 님이 얼마나 고향 포천교육을 위해 땀 흘렸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어서 재미있다.

‘엄격하게 교육자의 권위’를 지닌 교육자였음을 알 수 있어 존경이 앞선다.

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에 제작된 유채화가 주로 이번 전시회에서 선 보였는데, 화려한 색채감과 자연 사실주의와 평화로운 멋치는 자연을 사랑하며 즐기는 미술애호가들의 거실이나 학교 전시실에서 그 빛을 오랫동안 빛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천출신 미술가로는 부산 동아대 미술대학 교수 김광우 님(설치미술), 고 구분주 화백, 안동대 오병인 교수(퇴임 동양화 전공) 등이 있는데, 이찬호 님 같이 자연 풍광이 어울어진 유채화를 그린 자연주의 미술가는 이찬호 님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풍경 화가회전과 태평양미술가회전 등에서 님의 작품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미술가들이 많았다는 점은 유망하다. 포천의 자연경관을 담은 역작을 기대해 보기로 하자.

필자연락처 02-932-2434

祝耆老宴感懷 東同公風功 (축기로연감회 동동공풍공)

敬老尊崇仰我東(경로존숭아동) 노인을 존경하는 사상은 우리나라 전통예절인데 滿盤珍味歡心客(만반진미환심객) 상에 가득한 성찬은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孝道美談迎舜日(효도미담영순일) 부모 섬기는 미담은 순황의 시대를 맞은 듯 하고 桑榆窮蹙何須企(상유궁축하은수) 허리 구부러진 늙은이들이 무엇을 비리리오

設筵祝壽古今同(설연축수고금동) 만수무강을 비는 잔치(耆老宴)는 고령이 다르지 않네 旨酒嘉肴厚待公(의주가후후대공) 맛좋은 술과 안주로 손님들을 후하게 접대하네. 彝倫善行效堯風(이륜선행효堯風) 이윤서행은 오나라 문명을 본받았네 賢也青儒讚頌功(현야청유찬송공) 어질도다 젊은 유생들 그 공을 아낌없이 찬양하네



錦岩 楊 載 昌 포천향교 전교

초대 詩 첫눈 내리는 날

눈이 내린다 부시도록 어여쁜 얼음꽃눈이 내린다 수척해진 광릉 숲에도 호젓한 마을 매개하게 연기 뿜는 굴뚝에도 푸석푸석 흐트러진 머리 마른 입술에도 첫사랑의 떨림처럼 촉촉하게 눈이 내린다 이 밤에 오래된 詩人을 생각한다면 홀로 찬 소주 마시며 사랑하는 여인을 밤새 기다렸을 그를 연모하게 된다 이별인줄 알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의 가슴에서 가난하였으므로 더욱 뜨거웠을 사랑을 만난다 그 맘에 내 맘이 닿아 허물한 주막집 쓸쓸한 나무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신다 애달픈 사랑도 잊어아할 그대도 테러 당한 내 심장도 비워지는 잔 만큼씩 텅텅빈 진다 필월 눈이 내린다 시란 별 총총한 하늘을 이고 지독한 그리움 하나 비를대며 걸어나간다



백복금 솔모두문학회 편집위원